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11월

선교편지 제 95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익핏 지역'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시간을 달리하여 익핏 지역의 어린이들, 고등학교 학생들, 장년들에게 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믿는 자들의 영적 가정이고,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고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익핏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일년 이상 기도하며 익핏 지역을 수소문하여 찾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큰' 교회 건물을 익핏 지역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익핏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 형편을 고려해서 이미 건축된 디고스 예일 교회보다 적은 규모의 예배당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었는데, 제 적은 믿음을 책망이라도 하는듯이 디고스 예일 교회 면적의 30배가 넘는 큰 교회를 별도의 건축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익핏 지역 마을 책임자, 고등학교 교장 및 초등학교 교장과 협의를 하고, 디고스 지역 교육부의 허가 하에 향후 2년동안 익핏 초등학교를 교회로 사용하기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디고스 지역에 장학 사역과 더불어 거의 고유 명사로 자리 잡고 잘 알려진 '예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새로운 교회를 '익핏 예일 교회 (Igpit Yale Church)' 로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익핏 지역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익핏 지역에는 500여명의 초등학생들과 55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인 까닭에 학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한 책걸상도 없어서 교실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익핏 선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3년동안 익핏 고등학교에 교실 1동, 화장실 1동을 증축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의자 및 컴퓨터등도 기증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학교가 이 수준인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형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학생들은 매학기마다 '학부모 경비 (PTA Fee)'를 내야 하고, 이것으로 부족한 학교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식사 한끼 값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적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핏 예일 교회'는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주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를 위한 첫번째 사역으로 '뉴욕 예일 교회'의 헌신된 후원자를 통하여 각 학교에서 학부모 경비를 내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150명과 고등학생 122명을 후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1월 첫주일, 익핏초등학교 교정에서 플라스틱 의자 100개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기 한 시간전부터 모인 어린이들이 마치 자기 의자인양 앞 다투어 독차지한 까닭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 졌습니다. 1년 6개월전 디고스 예일 교회는 의자 10개로 첫 예배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익핏에서의 첫 예배에 빈자리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익핏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의자 도매상에 연락하여 50개의 의자를 추가 주문 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가 기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익핏 지역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 49:22)**





11월 첫주일, 디고스 예일 교회 창립 이후 고대하던 첫번째 '성찬식'을 감격 가운데 거행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하며 실행하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는 교회가 설립된지 1년 6개월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온 교인이 참석하는 감격스러운 '성찬식'의 모습을 그려 왔지만, 현지 선교지의 상황과 교회 형편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현지인들은 어릴적부터 이미 이곳 전통 카톨릭의 미사와 성찬식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즉, 마리아의 아들로써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야만 했던 것처럼, 어릴적부터 현지 종교에서 이미 익숙한 '세례와 성찬'도 바로 알게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 가는데 도리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흰 종이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게 그려진 그림을 지워가며 새로이 그려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지 카톨릭에서는 성찬식 중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 한다는 소위 '화체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을 통하여 실제로 본인의 몸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새롭게 생성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 함으로 인하여, 연약했던 몸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강건해 지고, 심신도 맑게 해 주며, 죄도 사하여 주고, 축복을 받는 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카톨릭 미사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매주 성찬식을 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심방하는 집에서도, 또한 심지어 장례식 중에도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치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 아닌 선물을 주고 받는 날로 기억 된 것처럼, 현지인들에게는 '성찬식'이 이미 건강과 복등과 연결되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매우 깊이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고스 예일 교회에 등록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찬식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그동안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불분명하고 어지러웠던 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마침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찬식 이후에는 전교인들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찬양 했습니다. 수 없이 불렀던 익숙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원문을 통하여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내 마음에 두려움을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가?

**Thro'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is grace hath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유혹의 덫을 지나,  
나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도다.  
여기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날 본향에 이르게 하시리.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